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1]	그날이 오면 (심훈): 2P
	산상의 노래 (조지훈): 2P
[02]	황혼 (이육사): 4P
	성에꽃 (최두석): 4P
[03]	불사조 (정지용): 6P
	꽃씨 (문병란): 6P
[04]	달·포도·앞사귀 (장만영): 8P
	아침 시 (최하림): 8P
[05]	생명의 서·일장 (유치환): 10P
	희망의 거쳐 (이정록): 10P
[06]	역사 (신석정): 12P
	지리산 뺨꼭새 (송수권): 12P
[07]	전라도 가시내 (이용악): 14P
	나목 (신경림): 14P
[08]	병원 (윤동주): 16P
	벽 (김기택): 16P
[09]	눈물 (김현승): 18P
	강우 (김춘수): 18P
[10]	파발 가에서 (김수영): 20P
	들국 (김용택): 20P
[11]	흙 (문정희): 22P
	느티나무로부터 (복효근): 22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77p / 해설 24p]

(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복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 심훈, 「그날이 오면」 -

(나)

높으디 높은 ㉡ **산마루**
낮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찢줄의 굵이굵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25001-0065]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작품 전반에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의 어미를 활용하여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25001-0066]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특정인과의 과거 대화를 상기하는, ㉡은 특정인에 대한 호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감정을 발산하는, ㉡은 화자가 혼자서 부정적 현실을 감내해 온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의 내면을 다른 이들로부터 숨기기에, ㉡은 화자의 이상을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에 용이한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후회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추구하는 가치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하는 공간이다.

[25001-0067]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제 강점기의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간절한 염원의 대상이며 이상적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가)는 광복의 상황을 가정한 후, 적극적인 행동 수행과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의지를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하여 걱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나)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한 기쁨과 광복 이후의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가)와 (나)의 어조의 차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 ① (가)의 ‘오면’과 ‘오면은’의 변주가 ‘와 주기만 한다면’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것은 가정의 상황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가)의 ‘기빠서 죽사오매’ 한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나 ‘거꾸러져도 눈을 감’는다는 것은 화자의 내면을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과 결부하여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나)의 ‘시들은 핏줄’과 ‘환히 트이는 이마’의 대비는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와 강점기 이후 찾아온 광복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는 격정적 어조를 통해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의지를, (나)의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는 차분하면서도 다소 냉담한 어조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대한 울분과 광복에 대한 염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가)의 ‘복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선다는 것은 행동 수행의 적극성을 드러내며, (나)의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홀로’ ‘무엇을 기다리’는 모습은 광복 이후의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사적 태도를 연상시키는 것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0p / 해설 25p]

(가)

내 골방의 커 — 틈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臟)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沙漠)을 걸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隊)
에게나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來日)도 또 저 — 푸른 커 — 틈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 수인: 옥에 갇힌 사람.

*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변뜰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 지금은 먼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25001-0068]

1. 다음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 (가)와 (나)를 읽으며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 ‘확인
질문’에 맞는 답을 표시해 보자.

확인 질문	(가)		(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는 색채어를 찾아볼 수 있는가?	✓			✓
㉡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띠고 있는가?	✓			✓
㉢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가?		✓	✓	
㉣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문이 사용되어 있는가?	✓			✓
㉤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 하는 의문형 종결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가?	✓		✓	

① ㉠

② ㉡

③ ㉢

④ ㉣

⑤ ㉤

[25001-0069]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분열된 화자의 또 다른 자아이고, ㉡은 화자가 회상하는 과거의 자기 모습이다.
- ② ㉠은 화자에게 윤리적으로 귀감이 되는 존재이고, ㉡은 화자의 자유를 박탈한 주체이다.
- ③ ㉠은 화자의 고독을 위로해 주는 존재이고, ㉡은 화자가 지향했던 삶의 태도를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드러내는 희망의 근거이다.
- ⑤ ㉠과 ㉡은 모두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처지라는 사실로 인해 화자가 떠올리게 된 대상이다.

[25001-0070]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특정한 속성을 지닌 중심 소재를 접한 경험에서 촉발된 상상을 바탕으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다. 이때 (가)의 화자가 하는 상상은 여러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떠올리는 공간적 확장을 통해, (나)의 화자가 하는 상상은 동일한 공간을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을 떠올리는 시간적 변환을 통해 전개된다.

- ① (가)의 화자가 ‘커-튼을 걷’는 것과 (나)의 화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은 중심 소재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경험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는 중심 소재가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나)의 화자는 중심 소재가 ‘찬란한’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느끼고 있군.
- ③ (가)의 ‘활 쏘는 토인들’과 (나)의 ‘실업자’는 각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존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에서 ‘입술을 보내’는 것과 (나)에서 ‘은밀히 만나’는 것은 소외된 존재들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가)에서 화자의 상상은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으로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나)에서 화자의 상상은 ‘새벽’에서 ‘간밤’으로의 시간적 변환을 통해 전개되고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3p / 해설 27p]

(가)

비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었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A]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 ‘행복’이 너를 아조 싫여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비애! 오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야 나의 창과 웃음을 담었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모 석문(石門)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어!
- 정지용, 「불사조」 -

(나)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술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B]

비애의 꺾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窓邊)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 문병란, 「꽃씨」 -

[25001-0071]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5001-0072]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A]는 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B]는 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생성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가변성을, [B]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25001-0073]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한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비에’를 인간의 근원적 감정으로 인식하며, 인간은 굴레와 같은 ‘비에’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비에’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나)의 화자는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야 생성되는 ‘꽃씨’를 보며 인간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깨닫고 있다. 소멸과 비움, 그리고 그리움의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 ① (가)에서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고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비에’라는 감정이 인간의 근원적 감정임을 인식한 것이로군.
- ② (가)에서 ‘나의 신부’인 ‘비에’가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죽었다는 것은 ‘비에’를 젊은 시절에 늘 자신과 함께하는 숙명적인 존재라고 여긴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③ (가)에서 ‘비에’를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불사조’라고 한 것은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 ④ (나)에서 ‘그 술한 잎이며 꽃이며 /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에 ‘작은 꽃씨’가 된다는 것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소멸이 있어야 함을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로군.
- ⑤ (나)에서 ‘꽃씨를 골라 /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는 것은 생성과 비움의 반복을 통해 완전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로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6p / 해설 28p]

(가)

㉠ 순이 버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 장만영, 「달 · 포도 · 잎사귀」 -

(나)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네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싸인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 불이 붉은 막내까지도 킁킁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잡목 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 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뽕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 최하림, 「아침 시」 -

[25001-0074]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을 호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의 시작과 마무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무정물인 소재를 유정물과 같이 표현하여 대상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구조적 완결성이라는 수미상관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시간의 역행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하여 시상 전개상의 주요 대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⑤ 공간의 변화에 따라 관찰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5001-0075]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재회를 소망하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거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며,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유발한다.
- ④ ㉠은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존재를, ㉡은 화자가 가련하게 생각하는 존재를 나타낸다.
- ⑤ ㉠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듯한 대상으로, 순박한 느낌을, ㉡은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25001-0076]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인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나 비유를 사용하여 시의 내용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관념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가)는 뜨락의 포도가 달빛아래 익어 가는 풍경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비유를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과 자연물을 활동적이고 상승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상 간의 유사성 내지는 일체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상상의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버레 우는’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뜨락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군.
- ② (가)에서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는 시각의 후각화를 통해, ‘동해 바다 물처럼 / 푸른 / 가을 / 밤’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가을밤에 대한 느낌을 다채롭게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나)에서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는 상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④ (나)에서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 오른다’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움직임을 상승적 이미지로 구체화한 것이군.
- ⑤ (나)에서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 꿈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 저 가지로’ 나는 것은 아이들과 굴참나무 간의 형태적 유사성을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나타낸 것이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9p / 해설 29p]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울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환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

* 영겁: 영원한 세월.
* 사구: 모래 언덕.

(나)

옥수숫대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딘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이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딘는 저 결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울대까지 울컥울컥
㉤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 이정록, 「희망의 거처」 -

[25001-0077]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인칭 대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가정적 진술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가 주시하는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원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한탄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25001-0078]

2.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가 기대하는 세속적 행복을 만끽하는 공간이며, ㉥는 화자가 두려워하는 불행을 맞닥뜨리는 공간이다.
- ② ㉡는 화자로 하여금 자기 단련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며, ㉥는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을 발견하는 공간이다.
- ③ ㉡는 화자가 공동체적 연대감을 느끼는 대상을 만나는 공간이며, ㉥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을 조우하는 공간이다.
- ④ ㉡는 화자가 현실의 부조리로 인한 절망을 경험하는 공간이며, ㉥는 화자가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는 의로움의 가치를 깨닫는 공간이다.
- ⑤ ㉡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공간이며, ㉥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공간이다.

[25001-0079]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로 하여금 ‘나는 가자’에 나타나는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화자가 향하는 공간이 모든 존재가 ‘사멸’하는 고통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떠올리는 ‘고독’의 정도가 매우 강렬한 수준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옥수숫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눈을 맞’추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공생하기 위한 대상 간의 소통을 부각하고 있다.

[25001-0080]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인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동력은 자아를 탐구하거나 상처, 시련 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자아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와 (나)는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가)는 삶에 대한 회의와 번민으로부터 벗어나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의지와 노력을 나타냄으로써 자아 탐구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실패로 인한 상처의 의미 있는 수용,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성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는 상황은 삶에 대한 회의와 번민으로 화자가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겠다는 것은 본질적 자아와의 대면이 이루어진 이후에 느끼게 되는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화자 자신을 이끌어 가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나)에서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실패로 인한 상처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자아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가)에서 ‘호울로 서면 / 운명처럼 만드시 ‘나’와 대면케’ 된다는 것은 화자가 바라는 바인 본질적 자아를 찾은 상태를, (나)에서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는 것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생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⑤ (가)의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려 애쓰는 과정은 자아에 대한 탐구를, (나)에서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2p / 해설 31p]

(가)

1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아련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 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여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 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 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 빠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 뜬*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빠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下)
한 봉우리에 숨은 실재의 빠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빠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中)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下)에서 울던 한 마리 빠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빗길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빠꾸새」 -

* 길 뜬: 길이 덜 든.
* 세석: 조그마한 돌.

[25001-0081]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나)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5001-0082]

2.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직유법을 활용하여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은 색채어를 통해, ㉡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을 통해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25001-0083]

3.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중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배층의 억압으로 인해 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 가는 영속적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민중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적 연대와 화합을 바탕으로 반목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생성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적 존재이기도 하다. (가)와 (나)는 모두 소박한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떠올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예찬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① (가)의 ‘허잘것없는’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민중의 모습을,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영속적 존재로서의 민중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은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 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게 하는 힘으로 지배층의 억압을 이겨 내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그래서 여러 마리의 뼈꼭새로 울음 우는 것’은 설움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민중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강이 열리는 것’과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은 민중의 설움이 단지 슬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생성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 과 입맞추고 살아가듯’과 (나)의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우는 것은 반목과 대립을 일삼던 존재들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5p / 해설 33p]

(가)

알록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 발을 열구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든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 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줄게
 ㉣ 손때 수집은 분홍 땀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 눈포래 휘감아 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 열구며: ‘열리며’의 방언.
 * 호개: 호가(胡歌). 북방 오랑캐의 노래.
 * 불술기: ‘불수레’, 즉 태양. 혹은 ‘기차’의 함경도 사투리.
 * 우줄우줄: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가볍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

(나)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 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배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 신경림, 「나목」 -

[25001-0084]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도치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적 대상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정서가 고조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25001-0085]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혹독한 추위를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살던 곳을 떠나오면서 겪은 시련을 암시한다.
- ② ㉡: 삶의 고단함에 대한 대응 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의 강인한 내면을 부각한다.
- ③ ㉢: 가시내의 어두운 내면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다.
- ④ ㉣: 세파를 이겨 낸 뒤의 가시내의 복장을 나타낸 것으로, 가시내가 염원하는 미래의 상황을 환기한다.
- ⑤ ㉤: 술막을 나설 보일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시련에 절연하게 맞서는 태도를 부각한다.

[25001-0086]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과의 동질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 역시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서 유랑하는 처지임을 고백하며 청자로 설정된 ‘가시내’와의 동질성을 드러낸다. 나아가서 그녀가 겪은 아픈 삶의 기억에 동참하고, 고향에서의 밝은 기억을 환기시키며 그녀를 위로한다. 한편 (나)의 화자는 겨울 ‘나무들’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나무들의 모습에서 화자 자신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을 떠올리고 그 슬픔에 공감을 표한다.

- ① (가)의 ‘까무스레한 네 얼굴’은 화자가 유랑하던 도중에 만난 시적 대상의 모습을, (나)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헐벗은 나무들은 화자가 겨울에 바라본 시적 대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군.
- ② (가)의 가시내가 화자처럼 타국 땅인 ‘북간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가시내의 동질성이, (나)의 나무들처럼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서 화자와 나무들의 유사성이 드러나는군.
- ③ (가)의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는 가시내가 고향을 떠나는 상황에서 느꼈을 슬픔을, (나)의 ‘깊은 울음’은 인간 존재가 지닌 근원적 슬픔을 환기하는군.
- ④ (가)의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가시내가 유랑하는 처지가 되면서 겪은 아픈 삶의 기억을, (나)의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아픔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의 가시내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를 통해, (나)의 나무들이 표상하는 이들은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위로를 받고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8p / 해설 34p]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 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 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열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 김기택, 「벽」 -

[25001-0087]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자조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25001-0088]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환기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병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과 관련한 현상을 통해 공간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과 화자를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의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 상황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부질없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이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5001-0089]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윤동주의 「병원」과 김기택의 「벽」은 모두 화자가 일상적 공간에 있는 특정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은 모두 소외된 인물로 화자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관찰한 내용이나 이로 인해 촉발된 화자의 행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화자와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모두 각각의 공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으로서 주제의 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금잔화’를 가슴에 ‘꽂’은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높고 튼튼한’, ‘더욱 견고한 벽’이 되어 가는 ‘승객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제시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가)의 ‘젊은 여자’는 ‘가슴을 앓’고 있지만 ‘찾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나)의 ‘작은 할머니’는 ‘승객들’에 ‘에워싸’인 미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소외된 인물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화자는 ‘젊은 여자’와 대비되는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태도를 인지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자신이 ‘할머니’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행위가 촉발되고 있군.
- ⑤ (가)의 ‘병원’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공간이지만 화자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의 ‘전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인간 소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0p / 해설 35p]

(가)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生命)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

(나)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싸한 냄새가
코를 땀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둡을 적시며 ㉡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25001-0090]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다른 인물의 사연을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A]는 불완전한 문장 종결을 통해 시적 여운을 전달하고 있고, [B]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25001-0091]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② ㉠과 ㉡은 모두 불의한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저항적 태도를 함축한다.
 - ③ ㉠은 화자의 내면적 성숙을 이끌고, ㉡은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나타낸다.
 - ④ ㉠은 현실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은 현실을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 ⑤ ㉠은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나타내고, ㉡은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선망을 드러낸다.

[25001-0092]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나)는 모두 가족과의 사별을 소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가)는 아들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부모의 관점에서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잃은 화자는 자연적 순환과 같은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 절대적 존재인 신에게 의탁하여 그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나)는 아내와의 사별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화자는 사별로 인한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아내의 존재를 느끼다가 계속되는 부재의 확인으로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① (가)의 ‘나의 전체’와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은 화자가 의탁하고자 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신을 표상하는 것이다.
- ② (가)의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이 ‘열매를 맺게’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에서 화자는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③ (나)의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에서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하던 화자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에서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 ④ (나)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와 ‘옆구리 담괴’는 일상적 소재로, 화자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 ⑤ (가)의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에서 화자는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의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에서 화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3p / 해설 36p]

(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먼지 얹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 가에서」 -

(나)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هندாய
뭐هندாய.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هندாய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것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هندாய
㉤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저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텃다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 서리 밭에 ㉦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هندாய, 뭘 소용이다요.

- 김용택, 「들국」 -

[25001-0093]

1.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명령형의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계절감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에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25001-0094]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에게 과거를 환기하게 하고, ㉡은 화자에게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 ③ ㉠은 화자를 성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고, ㉡은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 ④ ㉠은 화자에게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고, ㉡은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함축하는 존재이다.
 - ⑤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고,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대상이다.

[25001-0095]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오래 방치된 모습을 통해 ‘묵은 사랑’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 ② ㉢: ‘새벽’과의 연관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인식하게 한다.
 - ③ ㉣: ‘도망가불고’라는 표현과 연관 지어 볼 때, 화자를 떠난 임을 떠오르게 하는 존재이다.
 - ④ ㉤: 푸석하게 말라 있는 형상을 통해 임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화자의 정서를 짐작하게 한다.
 - ⑤ ㉥: 이어지는 ‘들국’과 동일한 색채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25001-0096]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랑의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과거의 사랑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사랑의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 ‘묵은 사랑이 / 움직일 때’에서 사랑이 벗겨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곧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가)의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랑과 결별해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나)의 ‘산마다 단풍’,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에서 ‘단풍’과 ‘하얀 억새꽃’은 자연물이지만 화자와 단절되어 있는 임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자연물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대요’,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뭉헛대요’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당신’과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가)의 ‘늪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세상 길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6p / 해설 38p]

(가)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A]

㉠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일이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펴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 문정희, 「흙」 -

* 귀의처: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하는 곳.

(나)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울통불통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불거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살에 웅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단 뜻이라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나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 껍질 그 안 쪽으로
속살이 찢어 몸통이 비어 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 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 **선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B]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잡지 않는다
㉤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

[25001-0097]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다짐이 나타나 있다.
- ②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며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 ③ 고통스러운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간의 특징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연상되는 속성이나 성질을 이끌어 낸 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5001-0098]
2.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환기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점층적으로 고조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그리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B]는 추측의 의미를 지닌 어미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5001-0099]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 흙의 이중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특정 시어의 반복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③ ㉢: 느티나무에 동질감을 느끼며 교감을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④ ㉣: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내적 의지가 느티 나무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⑤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25001-0100]

4.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생성의 근원이자 삶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거나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자연은 모성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연의 모성성은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는 자기희생을 통해 그 헌신적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인간은 이러한 모성성을 지닌 자연으로부터 포용과 배려, 따뜻함의 가치를 배우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도공이 밤낮으로 /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은 흙이 생성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 ② (가)에서 ‘두레박으로 / 자신을 퍼 올리는’은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 ③ (나)에서 ‘선불리 /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것은 삶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 ④ (나)에서 ‘발등에 앉아’ 있는 ‘모기 한 마리’를 잡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체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 ⑤ (가)에서 ‘철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씨앗과 (나)에서 ‘배에 피꽃을 피’우는 모기는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며 헌신하는 모성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어.